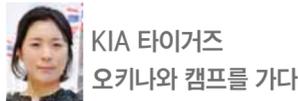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경기에서 스프링캠프 11연패를 끊은 뒤 밝은 표정으로 덕아웃으로 들어오고 있다.

박진두 멀티안타...KIA 11연패 탈출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라쿠텐 4-0 제압...첫 승 김기태 감독 "저도 되는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오자 선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이파이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연습경기는 연습경기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승리'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에게는 마음에 남아있던 11연패였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연패 사슬을 끊었다. 2년 만의 첫 승은 4-0 영봉승이었다. 라쿠텐과의 경기가 열린 18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 5회가 지나면서 내야 잔디밭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던 KIA 선수들 입에서 "이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경기는 어쩔 지 모른다"며 괜히 설레발을 치지말라는 선수도 있었다. KIA는 이날 4회초 공격에서 박진두와 황대인의 연속 안타에 이어 백용환의 볼넷이 나오면서 4회초 무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다. 이흥구의 적시타가 나왔지만 추가 점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5회 2사 3루에서 박진두의 안타가 터지면서 2-0으로 달아났다. 7회, 9회에는 김호령과 오준혁이 3루타를 때려내면서 승리를 자축했다. 마무리로 나선 심동섭이 우익수 플라이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자 경기장에 도열하고 있던 선수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외국인 선수 필도 "2년 만의 승리다. 축하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라운드로 걸어나갔다. 뒤를 따르던 헛타의 입에서도 "롱그레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KIA는 지난해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치른 9번의 연습경기에서 103실점과 함께 9전 전패를 기록했다. 이번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도 주니치·야쿠르트전 2연패로 시작했다. 17일 요코하마전 무승부로 분위기를 살린 KIA는 라쿠텐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2년 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선수들과 달리 스프링캠프에서 처음 승장이 된 김기태 감독의 반응은 "저도 된다"였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과

의 미팅에서 "감독이 연습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삼진을 잡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게임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본다.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만큼 이기고 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상황에 따라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승리를 하면서 내일은 연패가 없다"고 웃으면서 "4회 무사 만루 기회에서 추가점을 얻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7회와 9회 점수를 뿔으며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차분하게 출격을 준비하고 있던 주전급 선수들의 가동도 예고했다. KIA는 19일 온나손 야카마볼파크에서 이번 캠프 네 번째 연습경기를 치른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1군서 내 기록 남기고 싶다"

첫 스프링캠프 김윤동 3이닝 무실점 투수 전향 후 1군서 3피안타·2볼넷

"평균자책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막내의 꿈. KIA 스프링 캠프의 막내 투수 김윤동이 1군 마운드 도전에 속도를 낸다. 김윤동은 18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연습경기에서 3이닝 3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다. '막내' 김윤동이 스타트를 잘 끊어주면서 KIA는 4-0 무실점의 경기를 하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스프링캠프 11연패에서 벗어났다. 이날 김윤동에게 주어진 과제는 '직구'. 자신의 장점인 목직한 직구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김윤동은 "직구 위주로 던졌다. 코치님이 직구를 시험해보라고 하셨다. 타자들이 이걸 어떻게 치고 저건 어떻게 치는지 직구를 시험하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동의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6km, 150km를 넘는 공을 던졌던 만큼 스피드와 구위를 더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윤동은 "직구를 더 세게 던지려고, 힘을 쓸 수 있게 연습하고 있다. 아직 페이스가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잘 던진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 타자들이 치고 죽어줬다"자평했다. 이번 캠프는 김윤동에게는 첫 스프링 캠프이자 투수 변신을 완성해야 하는 시간이



다. 마운드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지만 프로 시작은 외야수였다. 2012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김윤동은 외야수로 지명을 받았다.

김윤동은 "고등학교 때도 투수를 하고 싶기는 했는데 야구를 못했다. 투수는 어렵다고 해서 야수를 했는데 야수로도 많은 활약을 못했다. KIA에 지명을 받은 게 신기하다"고 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프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의 강한 어깨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투수로의 전향은 김윤동의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목직한 공으로 어필을 하면서 2013년에는 1군 콜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좋은 기억은 아니다. 2군 선발 등판 후 3일 만에 1군 마운드에 오면 그는 자신의 프로데뷔전에서 3피

안타 2볼넷을 남기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유일한 1군 기록이다. 그래서 김윤동은 "아웃카운트를 잡아보고 싶다. 아웃카운트가 없어서 평균자책점이 없다. 평균자책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1군에서 진짜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 소원. 그래서 캠프 연습경기를 치르는 그의 각오는 확고하다. 라쿠텐전에서 직구를 시험한 김윤동은 변화구 연습을 남는 경기의 과제로 언급했다. 그리고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김윤동은 "잘하는 게 목표다. 불이 높았는데 폼을 신경 써야할 것 같다. 폼이 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앞으로 나온다는 생각으로 던지고 있다"며 "감독님과 코치님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마운드의 막내지만 그는 지난 가을 상무에서 제대한 예비역이기도 하다. 일찍 군복무를 끝낸 만큼 직진만 남은 김윤동이 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통합 광주시체육회' 창립 광주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한 '통합 광주시체육회' 창립총회가 18일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수빈 'LPGA 돌풍' 호주오픈 1R 단독 선두

보기 없이 버디 9개 63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 차 김수빈(23)이 호주여자오픈 첫날 돌풍을 일으켰다. 김수빈은 18일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그레인지 골프클럽(파72·6천 60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호주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쏟아냈다. 9언더파 63타를 몰아쳐 코스 레코드를 작성한 김수빈은 카를리네 마손(독일)과 케이시 그라이스(미국·이상 6언더파 66타)를 3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김수빈은 10살 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영어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골프를 시작해 국내에서는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다. 김수빈은 10살 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영어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골프를 시작해 국내에서는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LPGA 투어 웰리파인스 쿨 공동 11위에 올라 투어 출전권을 딴 김수빈은 지난해 상급 랭킹 103위에 그쳐 올해는 폴시드를 얻지 못했다. 올 시즌 열린 2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호주에서 출전 기회를 잡은 김수빈은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리디아 고(19) 등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

서 상위권에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 퍼트수를 26개로 줄인 김수빈은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한 퍼트 라인대로 볼이 잘 굴러 들어갔다"며 "준비를 많이 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최혜진(18)은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 신지는(24·한화), 카리 웰(호주) 등과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4위에 포진했다.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장하나(24·비씨카드)는 3언더파 69타로 공동 11위, 동반라운드를 펼친 리디아 고는 2언더파 70타, 공동 21위로 첫날을 마쳤다.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적어낸 리디아 고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경기를 했지만 퍼트가 잘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2013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신지애(28)도 2언더파 70타, 공동 21위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74억원' 인천 프레지던츠컵 기금 역대 최고

2015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골프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서 612만 달러(약 74억원)의 자선 기금이 모아졌다. 프레지던츠컵 사무국은 이 기금은 대회에 참가한 33명의 선수, 단장, 등이 지정한 세계 자선단체와 한국필벽재단에 기부되고 골프육성재단인 '퍼스트티' 한국지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대회에서 모인 자선기금은 역대 대회 최고액이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골프대표팀과 인터내셔널팀이 2년마다 벌이는 골프단체전으로, 작년에는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렸다. 프레지던츠컵은 상금이 없는 골프 대회로 선수들은 참가비를 받지 않고 대회 수익금을 선수 및 단장, 부단장이 지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올해는 참가자당 15만 달러(약 1억 8천만원)가 기부된다. 참가자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외에도 한국필벽재단에 10만 달러(1억 2천만원), 퍼스트티 한국지부의 설립을 위해 100만 달러(12억 2천만원)가 전달됐다. 또 117만7천 달러(14억 4천만원)는 한국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대회를 주최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팀 핀칭 커미셔너는 "지난해 10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두 팀이 펼친 짜릿했던 명승부는 골프 역사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최고의 순간이었다"며 "이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자선단체에 600만 달러의 자선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1994년 시작한 프레지던츠컵은 지난 해까지 모두 3천843만 달러(약 471억 5천만원)의 자선기금을 모았다. /연합뉴스

타타니 "2017 WBC 투타 겸업"

일본 프로야구 투수·타자 타타니 쇼헤이(22·닛폰햄 파이터스)가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투타 겸업을 선언했다. 일본 스포츠 매체 '닛칸스포츠'는 18일 "타타니가 2017년 3월 열리는 제4회 WBC에 투수와 타자 모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프로 입단 후 타타니는 국제대회에 투수로서만 출전했지만, 구단 역시 (2017년 WBC에) 이를 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타니는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투수와 타자 모두 재능을 뽐냈다. 투수로는 시속 160km를 넘는 강속구를 던졌고, 타자로는 3년 통산 56홈런을 날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시선까지 사로잡았다. 일본 언론에서는 투수와 타자 모두를 소화하는 타타니를 이도류(二刀流)라고 표현한다. 메이저리그 입단을 고집하던 타타니는 2013년 프로 입단 때부터 투수와 타자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양쪽 모두 소화하는 조건으로 일본 프로야구행을 결정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지금까지 3시즌을 소화한 타타니는 투타 모두에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투수로는 통산 29승 9패 377%이닝 421탈삼진 평균자책점 2.72를 기록 중이며, 타자로는 통산 234경기 타율 2할4푼 5리·18홈런·68타점·61득점을 올렸다. 타타니는 지난해 열린 '프리미어12' 대회를 통해 일본 대표팀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한국전 2경기에 모두 등판해 13이닝 3피안타 21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보였다. 닛칸 스포츠는 "타타니가 프로 4년 차 캠프에서 타자로도 12타수 6안타를 기록해 투타 양면에서 재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타 모두 고집하는 타타니를 두고 야구계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시선도 보인다. /연합뉴스